

일주문



법왕사 창건 12주년 법회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은 4월 22일 오전 11시 포천 법왕사 창건 12주년 기념 초청 대법회에서 <신신명>을 강의한다. (031)532-4886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4월 29일 보제루에서 제107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을 입재한다. 수계산림은 5월 1일 회향한다.(051)508-3122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재선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3월 28일 김포 중앙승가대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총동문회장 선거에서 제14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으로 재 선출됐다.



수행생 장학금 지원
전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은 4월 3일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부산대 수행생들에게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향일독립지사 추모대법회
원주 구룡사 주지 원행 스님은 4월 5일 구룡사에서 제3회 향일승병장 무총대선사·원주 향일독립애국지사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평화콘서트 개최
나눔의집 원장 원행 스님은 4월 29일 한·일간 평화와 우정을 염원하는 제2회 평화콘서트를 개최한다.(02)722-2101



회당학회장에 선출
보원심인당 주교 효운 정사는 3월 31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진각종 통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당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시우 박사 초청 강연
이시우 전 서울대 교수는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삼성뮤지엄아카데미에서 '우주의 섭리'를 주제로 강의한다.(02)394-6544



예비 포교사 연수
조계종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4월 15일 지역별 예비 포교사를 대상으로 제12회 포교사 연수를 실시한다.(02)927-7588



차 예절 체험행사
한국차문화협회 이규래 이사장은 4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일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정경궁 영춘헌에서 차예절 체험행사를 개최한다.(02)762-9515

“중국 젊은 학자들 불교 연구·신행 활발”

북경대 종교문화연구소 루우열 소장



류할 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연구와 학자·스님들의 교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루 교수는 '선불교는 전통적인 의미의 불교가 아닌 중국인들만의 사유체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불교의 근본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불교는 중국에서 탄생한 것이 확실하지만, 그 근본정신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는 루 교수는 "선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겉옷만 다르게 입었을 뿐 그 중심사상은 한 뿌리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 = 이수영 기자

“중국 내 개방 바람을 타고 최근 10여 년 사이 중국 불교계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중국 북경대에서 만난 북경대 종교연구소 루우열(樓宇烈·사진) 소장. 중국 선종사를 전공한 루 소장은 “중국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들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불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최근 중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교 연구와 신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루 소장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에서는 사찰 복원 및 건립과 승려 교육기관인 불학원(佛學院) 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각 사찰에서는 회보와 사보를 펴내고, 중국 각 성마다 있는 불교협회에서도 불교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불교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대학마다 불교학과를 개설하고 한 해 300여 명에 달하는 불교학 전공 석·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매년 1000여 권 가까이 쏟아지는 불교 관련 논문들은 사상사적 측면 뿐 아니라 문화, 비교종교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매년 20여 차례의 불교학회가 열리는 등 그 아발로 ‘불교학 중흥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질적성과 복원성 등 동남 연안의 지역의 불교가 급속히 성장해 내지 불교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에는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와 유사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학생들이 1주일 간 절에 머물며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20여 개 사찰에서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한 회마다 사찰 규모에 따라 적게는 40여 명에서 많게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앞으로 한중일 삼국의 문화 교류에 있어 불교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라마다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부처님 가르침과 자비사상에 입각해 교

6군단 불이사 특별법회



6군단 호국불이사(주지 강대남 법사는 4월 1일 법당에서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일면 스님은 “군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부처님 법을 생각하며 정진한다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문했다.

불교아카데미 제1회 리더스 포럼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사)불교아카데미는 4월 3일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층 강의실에서 강명국 내일신문 대표를 초청, 제1회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장 대표는 “4차원 경영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시공간의 통일장으로 보는 경영”이라고 4차원 경영 대해 설명했다.

이웃돕기 일일차집 개최



서울 자양동 노인정사 포교원(주지 법경은 3월 30일 자광(前 직지사 주지) 스님을 중명 법사로 ‘부처님 개국회향 점안 법회’와 ‘어려운 이웃 및 난치병 환자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차집’을 개최했다. 바자회에서 모인 수익금 500만원은 5월 19일 광진구·성동구지역 이웃돕기에 쓰여진다.

불교복지선구자 묘희 스님 입적



경북 영양 올린산 연화사 묘희관 묘희 스님(사진)이 3월 31일 오후 1시에 입적했다. 세수 72세, 법랍 57세.
1980년대 말 누구보다 먼저 불교계 노인복지현장에 뛰어든 묘희 스님은 불심이 깊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연을 맺었다. 1951년 14세에 월해 스님을 은사로 율필암에서 출가했다. 51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사미니계를, 이듬해에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74년 신림동 약수암 주지를 맡으면서 82년 중앙승가대 비구니 수행관 학감, 85년 조계종 8대 중앙총회위원을 역임했다. 89년 경기도 화성에 지금의 부지를 매입해 이듬해 한국불교 자제공덕회를 설립하고, 91년 사단법인 불교자제공덕회 묘희원 원장 겸 이사장을 맡아 사회복지에 앞장섰다.
일생을 포교와 사회봉사에 헌신하다가 말년에 건강을 잃은 스님은 <법화경>에 의지하며 참회기도에 매진했었다.
묘희 스님의 다비식은 4월 5일 연화사 법당 옆에서 열렸다.(054)683-5799 김원우 기자

“잘사는 충북·행복한 도민”

충북불교연합회 도정 발전기원법회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공 범주사 주지)와 충청북도(도지사 정우택)는 4월 3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도정 발전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우택 도지사와 무위 스님(용화사 주지)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공 스님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한 지자체 운동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혜철 대진·충북지사장

이전 현대불교 대구지사 사무실이 대구 남구 대명9동 782-2 1층으로 이전했다.(053)768-8008

인천 황룡사, 새터민 템플스테이



천태종 인천 황룡사(주지 무원)는 4월 3일 이상안 민주평화 통일자문위원회 회장, 조영근 새터민 정착지원 사업단장과 여성 새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템플스테이 입제식을 개최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종교의 힘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당부했다.

천태종, 진해 해상사 낙성법회



천태종 진해 해상사(주지 보경)는 4월 3일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 진해사업연합회장 윤성(대광사 주지) 스님 등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당 낙성식 및 삼존불상·조사스님 존상 봉안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즉심성불’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역사문화유산과 환경 / 생태를 파괴하는 충남 가야산권 개발을 반대한다.

원시의 자연 속에서 천년의 미소가 살아 있는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가 있는 충남 서북부 해안의 명산인 가야산이 성장과 발전이라는 개발 논리 앞에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

지금 천오백 년 불교의 문화유산이 숨 쉬고 있는 가야산엔 나무가 잘려나가고, 산등성이가 깊이 패여 고압 송전철탑이 들어서고 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마애삼존불에서 불과 1백 미터 거리에 있는 앞산에 터널을 뚫고, 문화재를 발굴중인 보원사지를 관통하는 가야산 관동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다.

소위 충청남도의 내포 문화권 개발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야산 개발에 의해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으며, ‘백제의 미소’라 일컫는 천오백 년 불교의 문화유산과 지역 사찰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내포문화권 개발의 원래 취지는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복원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여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조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현하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른바 내포문화권 개발을 명분으로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충남 서북부 주민 더 나아가 문화유산을 아끼고 가야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찔림을 겪고 ‘백제의 미소’에 눈물을 머금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만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생태계와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전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뜻있는 이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는 개발의 미명 아래 소중한 문화유산과 환경을 파괴하는 가야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하며 아울러 가야산살리기시민연대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또한 2천만 불자와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첫째, 한국전력공사는 가야산 송전철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수립하라.
- 둘째, 충청남도는 가야산 관동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야산 보존방안을 마련하라.
- 셋째, 정부와 충청남도는 전문가, 환경단체, 종교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생태환경과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라.
- 넷째, 정부와 충청남도는 가야산 도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조속한 실무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불기2551(2007)년 3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일동